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4

▶ **25회 예고**
아쇼까는 밤에 꾸꾸따라마 사원에 머물고 있는 우빠굽따를 찾아간다. 우빠굽따는 설법을 잘하는 수행자인데, 아쇼까에게 옛 왐사국의 수도 꼬삼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쇼까는 자애로운 여인 사마왓띠에게 흥미를 느낀다.



아쇼까 진압군, 꼬삼비에 도착

까시국 바라나시 강가강 모래밭에서 1박을 한 아쇼까 진압군은 짙은 안개 속에서 아반띠국 웃자인으로 향했다. 까시국 왕이 선물한 비단옷은 진압군을 이끌고 있는 선봉대장에게 주어버렸다. 까시국에서 아반띠국까지는 들판과 언덕이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와 구릉의 땅이었다. 크고 작은 숲들은 대부분 언덕에 있었다. 아쇼까는 사라나무숲을 발견하고는 전령을 시켜 선봉대장을 불렀다. 선봉대장은 20대 중반의 장수로 용감하고 날랬다.

"대장, 행군을 멈추시오. 지친 군사들을 숲에서 쉬게 하시오."

"부왕님, 조금만 더 가면 꼬삼비가 나옵니다. 꼬삼비에 가면 군사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사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행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오."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사원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소?"

"구루나 사문들이 사원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룻밤 묵을 겸 꼬삼비까지 행군하시오."

꼬삼비는 마우리아국 전에 강성했던 왐사국의 수도였다. 지금도 꼬삼비는 빠딸리뿌뜨라에서 웃자인으로 가는 중간도시로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였다. 마우리아국이나 이전의 왕조인 마가다국이 세력을 확장할 때 모두 빠딸리뿌뜨라에서 바라나시, 꼬삼비, 웃자인 순으로 점령해 갔던 것이다.

아쇼까가 발견한 푸르스름한 사라나무숲은 남쪽 지평선 쪽에 있었다. 가깝게 보이는 것은 착시현상일 뿐 실제로 거기까지는 한나절이 더 걸릴 터였다.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하면 일사병으로 군사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아쇼까는 탁실라를 오가면서 행군의 요령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동속도나 휴식을 조절할 줄 알았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에게 지시했다.

"정찰조를 먼저 보내 꼬삼비 동태를 살펴보시오."

"꼬삼비는 옛 왐사국의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순순히 말을 잘 듣는 왕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찰이 없는 행군은 목숨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오."

"예, 부왕님."

선봉대장은 즉시 기마정찰조를 만들어 꼬삼비로 보냈다. 아쇼까는 기마정찰조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행군을 지시했다. 아쇼까의 예상대로 사라나무숲까지 이동하는 데 한나절이 꼬박 걸렸다. 군사들이 불볕더위에 지쳐 행군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아쇼까는 사라나무숲에서 선봉대장에게 휴식을 명했다.

"화덕은 정찰조가 온 뒤 걸어도 늦지 않을 것이오."

"점심때가 지나서 군사들이 허기져 있습니다. 짜파티라도 구워서 먹여야 할 것 같습니다."

"꼬삼비에 웃자인의 반란군이 있는지 없는지 정찰조의 보고를 받아보고 결정하시오."

"웃자인의 반란군이 꼬삼비까지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꼬삼비까지 왔다면 이미 바라나시까지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군사의 일이란 모르는 것이오. 어젯밤에 웃자인의 반란군이 꼬삼비에 들어왔을 수도 있소. 그래서 정찰조를 보내라고 한 것이오."

"부왕이시여, 알겠습니다."

"꼬삼비에 반란군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굳이 여기서 화덕을 걸 필요는 없소, 꼬삼비에 들어가 군사들에게 특식을 먹이는 것이 사기에도 좋을 것이오."

선봉대장은 아쇼까의 지략을 따라가지 못했다. 때문에 전투에서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그라도 아쇼까의 명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군사들은 산개해서 사라나무숲 그늘에 앉아 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 두 다리를 뻗고 쪽잠을 잤다. 빠딸리뿌뜨라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열사병으로 낙오하는 군사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혹서기 행군에 질려버린 진압군 중에는 도망치는 군사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쇼까는 도망병을 붙잡아 극형에 처했다. 진압군들이 보는 가운데 화형이나 참수형으로 다스렸다. 이윽고 정찰조가 돌아와 조장 군관이 아쇼까에게 보고했다.

"부왕이시여, 꼬삼비는 조용합니다. 반란군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좋다. 오늘밤은 꼬삼비에서 머물겠다."

아쇼까의 명을 받은 선봉대장은 사라나무숲 그늘에서 쉬고 있는 군사들에게 대오를 갖추도록 소리쳤다. 전투가 없을 때의 행군은 기마부대가 선두에 서고 보병부대, 코끼리부대가 후미에 섰다. 코끼리부대가 전투할 때와 달리 후미를 지키는 것은 군수물자를 운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는 선봉대장 뒤쪽에서 일산을 편 전투코끼리를 타고 행군했다.

말을 탄 선봉대장은 행군의 속도를 배가시켰다. 사라나무숲에서 기운을 얻은 군사들은 선봉대장의 지시를 잘 따랐다. 기마부대가 속도를 조금만 올려도 보병부대는 뛰다시피 했다. 군수물자를 나르는 코끼리부대도 생각보다는 보조를 잘 맞추어 뒤따라왔다.

꼬삼비성이 보일 무렵, 선봉대장이 아쇼까에게 말했다.

"꼬삼비 왕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우리 군사가 묵을 숙영지를 먼저 알아보고 오시오. 대왕께 충성을 다하는 꼬삼비 왕을 불편하게 하지 마시오."

"그럼, 숙영지를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성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싶소. 그러니 강가에 있는 절터였으면 더 좋겠소."

꼬삼비성으로 달려간 선봉대장은 긴장을 풀었다. 과연 꼬삼비의 거리는 평화롭고 한산했다. 뜨거운 햇볕이 땅바닥을 달구고 있을 뿐, 가로수 그늘이나 포도덩굴 밑에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상희(象戱)놀이를 하고 있었다. 조그만 널빤지에 가로 세로 줄을 그어 코끼리와 말, 군사, 대포, 수레(車) 등이 그려진 둥그런 나뭇조각을 양쪽에 정렬시킨 뒤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놀이였다. 왕 노릇을 하는 상대방의 코끼리가 먼저 잡히면 판세가 급히 기울었는데, 노인들은 편을 갈라 훈수를 두고 있었다. 선봉대장은 꼬삼비의 거리를 한 바퀴 돌았다. 성 안의 동쪽에는 고시따라마 사원이, 서쪽에는 작은 왕궁이 있었다. 붉은 벽돌로 지은 가옥들은 빠딸리뿌뜨라 못지않게 크고 단정했다. 성 안을 한 바퀴 돌아본 선봉대장은 아쇼까에게 자신이 정찰한 대로 보고했다.

"정찰조의 보고대로 꼬삼비는 조용합니다. 웃자인 반란군은 없습니다. 숙영지는 고시따라마 사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대가 높아 성 안팎의 동태를 경계하기가 용이합니다. 더구나 강이 가까워 식수를 구하기도 용이합니다."



"좋소. 숙영지는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하시오."

아쇼까의 명령에 따라 진압군은 신속하게 꼬삼비로 이동했다. 꼬삼비성 동문에 이르자 성민을 다스리는 왕과 신하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실권은 빠딸리뿌뜨라에서 파견 나온 신하가 쥐고 있었고,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그래도 의전 형식상 왕이 나서서 아쇼까를 맞이했다. 왕은 왐사국 우데나왕의 후손으로 체격이 호리호리했다. 왕이 아쇼까의 목에 꽃목걸이를 걸어주면서 말했다.

"꼬삼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만찬을 준비했으니 왕궁으로 가시지요."

"고맙지만 거절하겠소. 오늘밤 나는 우리 군사와 함께 고시따라마 사원에서 머물겠소."

그제야 빠딸리뿌뜨라 왕궁에서 온 신하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부왕이시여, 고시따라마 사원은 폐사나 다름없어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궁에서 편히 쉬십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군사들과 함께 있겠소."

"그러시다면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음식물을 보내겠으니 받아주십시오."

"고맙소."

아쇼까는 즉시 선봉대장에게 진압군을 고시따라마 사원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코끼리부대와 기마부대가 성문을 들어서자, 꼬삼비 성민들이 몰려나와 박수를 치면서 환영했다. 이동하는 진압군 군사들에게 꽃바구니를 든 여자들이 희고 붉은 꽃을 뿌리기도 했다. 진압군 군사들은 꼬삼비가 아니라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모두가 손을 흔들었다.

아쇼까 역시 꼬삼비성과 성민들에게 호감을 느꼈다. 고시따라마 사원에 이르자 그런 호감이 더 강하게 솟구쳤다. 고시따라마 사원의 강당건물들은 대부분 지붕이 무너져 있었고, 깨지고 그을린 벽돌들이 여기저기서 뒹굴었다. 그러나 수행자들이 사는 듯 경내는 비질이 선명했다. 아쇼까는 거대한 벽돌탑 기단에 올라 고시따라마 사원을 둘러보았다. 강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와 사원 중심에 우뚝 선 반얀나무 이파리들을 흔들었다. 그때 한 수행자가 항아리를 들고 아쇼까에게 걸어왔다. 이마에서 빛이 나는 젊은 수행자였다. 젊은 수행자의 기품 때문인지 군사들이 제지하지 않았다. 젊은 수행자는 북쪽 미투라에서 야무나강을 이용해 내려온 우빠굽따였다.

"왕자님이시여, 발을 씻으소서."

"난 사문의 스승이 아니오, 그러니 항아리의 물을 받지 않겠소."

아쇼까는 우빠굽따의 호의가 고마웠지만 거절했다. 군사들 앞에서 성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빠굽따는 항아리를 아쇼까 앞에 놓고 물러갈 생각이 없는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선봉대장이 말했다.

"부왕이시여, 사문의 호의를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성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지시했소."

아쇼까가 난감해하자 선봉대장이 다시 말했다.

"부왕이시여, 저녁을 드셔야 하니 손발을 씻으십시오."

그 사이에 전령이 세숫대야를 가지고 왔다. 할 수 없이 아쇼까는 항아리의 물을 따라 얼굴과 손을 씻은 뒤 두 발을 닦았다. 우빠굽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가 빈 항아리를 옆구리에 낀 뒤 돌아가려고 했다. 아쇼까는 우빠굽따에게 무언가를 보시하려고 물었다.

"고시따라마 사원에서 수행하는 사문이오?"

"아닙니다. 소승은 성 밖 벌판에 있는 꾸꾸따라마 사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성 밖에도 사원이 있소?"

"꾸꾸따라마도 있고 빠와리까라마도 있습니다."

"사문이 아닌 나를 예우한 이유가 무엇이오?"

우빠굽따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자 선봉대장이 말했다.

"부왕께서는 저녁을 드신 후 쉬셔야 하니 빨리 말하시오."

우빠굽따가 아쇼까에게 공손하게 합장했다.

"예우가 아닙니다. 은혜를 미리 갚고자 작은 정성을 보여드렸을 따름입니다."

"사문이 내게 무슨 신세를 졌다고 그러는 것이오?"

"왕자님의 저녁시간인데 소승의 이야기가 길어도 되겠습니까?"

"좋소. 하시오."

우빠굽따가 야무나강 강물처럼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며칠 전에 꾼 꿈을 이야기했다. 아쇼까 왕자가 마우리아국 대왕이 되어 강가강 동서남북 쪽으로 순행하면서 불탑을 세웠는데 그 불탑이 8만4천개나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빠굽따는 아쇼까대왕에 의해 마우리아왕국이 마침내 부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꿈에서 깼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빠굽따는 아쇼까 왕자가 꼬삼비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비록 꿈속의 감격이었지만 자신이 갚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야무나강으로 내려가 항아리에 물을 담아 왔다고 고백했다.〈계속〉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 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 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